

“9월에도 풍성한 학부모교육 함께해요”

도교육청, 엄마심리학·책모임 마중물샘·생활속 사이언스맘·법률상식 등 다채

전북교육청은 9월을 맞아 다채로운 학부모교육을 진행한다. 엄마심리학, 책모임 마중물샘, '놀부(父)랑 놀자(子)', 생활속 사이언스맘, 법률상식 등 9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도내 학부모들의 신청을 받는다.

먼저, 오는 17일부터 11월 19일까지 매주 화요일 개폐개골 작은 도서관에서 권애경 강사(대상관계상담심리연구소장)를 초대해 정신분석 관점으로 상처를 치유하고 엄마의 정서를 지원하는 '엄마심리학' 특강을 10차시에 걸쳐 진행한다.

19일 도교육청 8층 회의실에서는 일하는 부모를 위한 부모성장 달빛학교

강의가 저녁 7시부터 이뤄진다. 이날 교육에서는 김선호 강사가 '엄마를 이기는 아이가 세상을 이긴다'를 주제로 학부모와 만난다.

20일부터 10월 11일까지 국립전주박물관 본관 세미나실에서는 학부모 '책모임 마중물샘' 교육이 4차시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하는 '놀부(父)랑 놀자(子)' 아버지 교육은 21일과 28일, 도토일 2회에 걸쳐 한국도로공사 전주 수목원 체험장에서 이뤄진다.

23일부터 10월 14일까지 도교육청 8층 회의실에서는 장연희 강사에게 듣는 훈육, 자존감, 대화, 진로학습 등

'사춘기 자녀 마음보기' 교육이 진행된다. 미래 사회에 대응하는 학부모의 자세와 발달적 특성에 맞는 자녀 이해와 소통 방법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으로 4차시에 걸쳐 진행된다.

자녀의 감수성을 돕는 동화연극자원 활동가 교육은 안권순(꿈초롱극단 대표)의 3명이 강사로 나서 국립전주박물관 본관 세미나실에서 23일부터 11월 18일까지 9차시에 걸쳐 이뤄진다.

자녀의 과학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일상 속 숨어있는 과학원리를 찾는 '생활속 사이언스맘' 교육은 25일부터 11월 20일까지 매주 수요일 9차시에 걸쳐 개폐개골 작은 도서관에서 진행

된다.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매주 금요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는 학습, 발달, 인지, 이상, 관계 등 부모가 알아야 할 '자녀심리학' 교육이 5차시에 걸쳐 이뤄진다.

마지막으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삶에 대한 책임과 성장을 돕는 법률상식 학부모교육 '아는게 힘이다!'가 10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 도교육청 8층 회의실에서 열린다. 오창익(인권연대 사무국장)의 5명의 강사를 초대에 인권, 권리, 법, 소비자, 계약, 여성 등을 주제로 한 기본법률상식을 듣는다.

신청은 전북학부모지원센터(<http://parents.je.go.kr/main/main.je>) 홈페이지에 접속해 희망하는 교육을 선택, 접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가 전주추모관과 2일 오후 2시 30분 전북대 대학본부 회의실에서 양 기관 주요 관계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가졌다.

전북대-전주추모관, 협력체제 구축 맞손

양 기관 공동 발전·지역사회 기여 위해 협약 전북대 교직원 추모관 이용시 우대 정책 제공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전주추모관(대표이사 최이천)과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2일 오후 2시 30분 전북대 대학본부 회의실에서 김동원 총장과 최이천 대표이사 등 양 기관 주요 관계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협약식 이후 전주추모관은 전북대 발전을 기원하며 1천만 원의 발전기금도 기탁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일들을

함께 수행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전주추모관은 전북대 교직원들이 추모관 이용 시 가격 우대 정책을 제공하기로 했다.

전북대 김동원 총장은 "대학 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 경쟁력 향상을 위해 소중한 기금을 쾌척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늘 협약을 통해 구성원 복지서비스 개선은 물론 추모관 발전에도 기여하는 윈-윈 효과를 거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문화회관, 마음을 채우는 끝림의 인문학 강연

전북교육문화회관에서는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총 9회에 걸쳐 건강, 심리, 음식 등을 주제로 인문학 강연을 진행한다. 박은선 대표(심리·소통·코칭) 등을 주제로, 지리산 약초학교 및 농협회사법인(유)혜스의 박은선 대표는 '내몸을 살리는 우리 약초'를 주제로 강연한다.

참여는 학생 및 학부모 50여명 선착순으로, 회관 누리집 온라인접수나 방문 접수 및 현장 접수로 받을 예정이다. 참가비는 무료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문화회관 2층 교육실에서 강연이 펼쳐진다.

심리특강 전문기관 휴먼스타코칭연구소의 박은선 대표는 심리·소통·코칭 등을 주제로, 지리산 약초학교 및 농협회사법인(유)혜스의 박은선 대표는 '내몸을 살리는 우리 약초'를 주제로 강연한다.

참여는 학생 및 학부모 50여명 선착순으로, 회관 누리집 온라인접수나 방문 접수 및 현장 접수로 받을 예정이다. 참가비는 무료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이노폴리스캠퍼스, '스타트업-빌드업' 워크숍 개최

전주대학교 이노폴리스캠퍼스사업단(단장 최은복)은 지난 8월 29일부터 1박2일 동안 '스타트업-빌드업' 1차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이노폴리스캠퍼스 1차 선정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및 기업가정신 교육과 창업아이템을 사업계획서에 담아내는 실습과 멘토링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총 3회에 걸친 창업 IR발표를 통해 매회 창업아이템 검증비용 500만원을 지원 받게 된다.

최은복 사업단장은 "이노폴리스캠퍼스 지원사업을 통해 뛰어난 창업기업을 발굴하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원활한 투자유치 및 연구소 설립까지 연계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대 이노폴리스캠퍼스사업단은 기술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지원 프로그램으로 전주대 창업지원단 홈페이지(<http://startup.j.ac.kr/>)에서 상시 모집 중이다.

/장은성 기자

4차 산업혁명 이끌 맞춤형 인재 양성

전북대 소프트웨어공학과, 빅데이터 심화교육 '큰 호응'

전북대학교 소프트웨어공학과(학과장 유철중 교수)가 최근 4차 산업혁명 발전을 이끌 빅데이터 분야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전공심화 교육을 실시해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소프트웨어공학과에서는 3일간 '전공심화교육-Hadoop과 Ecosystem'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대학혁신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교육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경쟁력인 전자 조건인 빅데이터에 대한 사회적 수요에 맞추기 위해 진행됐다.

빅데이터 프레임워크를 학습해 여러 가지 예제를 실습하고 실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며 실무에 활용 가능한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3일간의 교육을 통해 평소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 처리 분야의 학습과 전공에 대한 심화과정 교육을 지원하여 학생 만족도를 높였다.



교육에 참여한 방세현 학생(소프트웨어공학과)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사회의 수요에 대해 파악하고 학습하며 진로 탐색 기회를 갖고, 경험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한편 소프트웨어공학과에서는 이번 특강 외에도 농공융합 전문가초청 특강, 블록체인 교육 등 소프트웨어공학과 학생들의 경험 및 진로 탐색을 위한 특강 및 교육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이어갈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맞춤형 소규모 창업강좌 운영... 특허문제·유통·아이템 타당성 분석 등

전주대학교는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의 일환으로 케이스타트업 홈페이지를 통해 25명의 (예비)창업자를 모집해, 지난 8월 28일부터 1박 2일 간 군산 베스트웨스턴호텔에서 2019년 '스타트업 빌드업' 맞춤형 창업교육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맞춤형 창업교육은 지역 수요를 고려해 맞춤형 소규모 창업강좌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이는 초기창업자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하고, 분야와 창업자 상황에 맞는 교육 커리큘럼을 제공함으로써 초기창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개설된 창업교육이다. 전주대학교는 기존에 진행했던 일반인 실천창업강좌를 올리는 창업자 맞춤형 창업교육 형태로 변경해 총 3회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1회 교육은 초기창업자에게 성공창업 및 자립생존을 주제로 진행했다. 기존의 법률, 마케팅 등 기본적인 창업교육내용에 초기창업자들이 겪을 수 있는 특허문제, 시장진입 및 유통, 아이템 타당성 분석 등 실질적으로 대표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커리큘럼을 구성하여 창업교육이 진행됐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임주희(전북전주시) 예비창업자는 "창업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이번 창업교육을 통해 창업아이디어에 대한 사업타당



전주대학교가 지난 8월 28일부터 1박 2일 간 군산 베스트웨스턴호텔에서 '스타트업 빌드업' 맞춤형 창업교육을 운영했다.

성 분석을 할 수 있어 좋았다"며 "앞으로의 창업에 이번엔 들은 교육내용을 최대한 활용하여 성공창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대학교 창업지원단 주정아 단장은 "이번 맞춤형 창업교육은 지역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소규모 강좌로 진행되어 교육생들의 교육 만족도가 높고,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사

회적 아이디어 발굴 확대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학교 창업지원단은 2회차 맞춤형 창업교육으로 '블록체인' 분야 교육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교육생 모집은 9월말에 케이스타트업(k-startup.go.kr) 및 전주대학교 창업지원단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할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